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3 호

2022년 12월 21일

- 목 차 -

### ■ 협회 소식

1. 2022 Korea Leaders Summit 결과 공유(11/29)
2. [Monthly Insights 12 월호] Korea Leaders Summit 2022 핵심 내용 요약
3. TGE 프로그램 ROUND III(2022-23) 결과 공유

### ■ 본부 소식

1.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Financing a Just Transition:A Business Brief)』 발간
2.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를 위한 CFO 연합’, 새로운 자문위원회 임명
3. 기업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 코스 안내

###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한국콜마홀딩스

### ■ SDGs 소식

[SDGs 솔루션] 외스테르브로 지구(Østerbro District) 프로젝트

## ■ UNGC & 회원사 뉴스

1. UNGC 한국협회,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 개최...지속가능성 공시에 주목
2. 씨앤씨인터내셔널, UNGC 가입...ESG 경영 껴걸음
3. 미래에셋, 여성 임원 14명 대거 승진
4. LG 전자 "전 세계 임직원에 ESG 교육 의무화"
5.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TCFD 지지선언...“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 회원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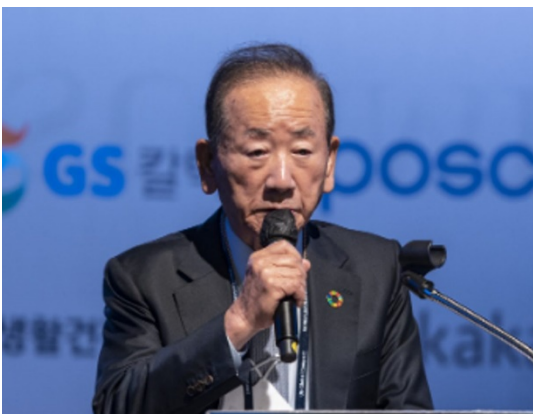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2022 Korea Leaders Summit 결과 공유(11/29)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11 월 29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orea Leaders Summit 2022’을 개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창립 15 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Korea Leaders Summit 2022 에서는 기업·정부·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이해관계자 35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급변하는 시대 속 공정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여정을 위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지속가능성’이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기업 경영에 UNGC 가치를 내재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포용적인 기업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노력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하며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잠보 사무차장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 COVID-19, 분쟁(conflict) 등 글로벌 위기의 ‘3C’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비즈니스와 시장 구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급속한 이자율 상승,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계 위협 등 여러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난관이 많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와 개발, 그리고 인권을 촉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며, 기업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기후 정의 및 평화 실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회원사를 LEAD 기업으로 위촉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 년도 LEAD 기업으로는 △근로복지공단 △DRB 동일 △DGB 금융지주 △CJ 제일제당 △유한킴벌리 △GS 칼텍스 △KB 증권 △포스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콜마홀딩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2023 년 한해 동안 지속가능성 의제 확산을 위한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UNGC 10 대 원칙 내재화 및 SDGs 달성을 위해 UNG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약속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기업과 인권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프로그램의 런칭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금호타이어 △㈜두산 △DRB 동일 △디라이트 △BGF △애큐온캐피탈 △SK 브로드밴드 △유한킴벌리 △ERM Korea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카카오 △포스코건설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효성첨단소재 등 참여사는 앞으로 약 6 개월간 기업 활동에 따른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인권 실사 절차를 수립하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타티야나 사하루크 유엔글로벌콤팩트 우크라이나 협회 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타티야나 사하루크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모습과 난민으로 전락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참상을 전하며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일상 속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 안전을 위한 신기술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협력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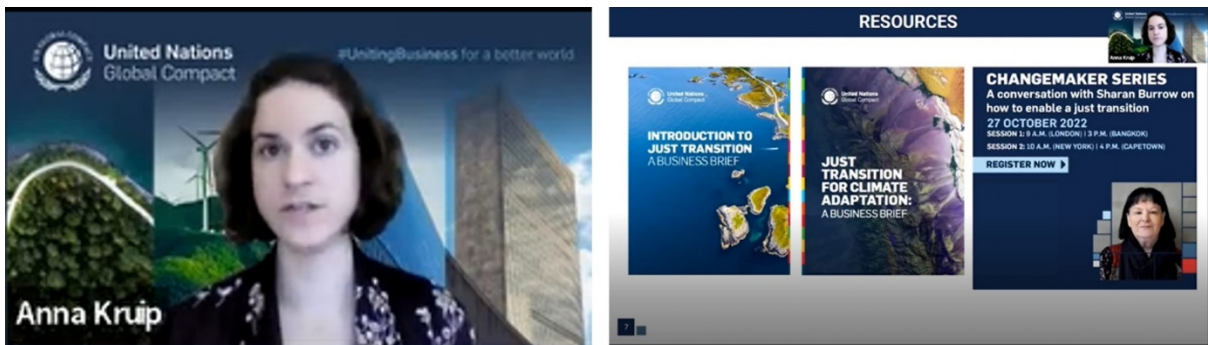
이어서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화여대 배일환 교수 및 이화여대 음악 봉사활동 동아리 ‘이화첼리’&‘이화다움’의 학생들이 헨델의 ‘울게하소서’, 우크라이나 국가 ‘우크라이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 등 4 곡을 연주하며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특별세션에서는 '글로벌 ESG 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먼저 세버린 니어부트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수석정책고문이 ESG 정보를 활용한 연기금의 책임 투자를 주제로 영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백태영 IFRS 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은 ISSB 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과 안옥상 KDB 산업은행 ESG 기획부장은 각 사의 ESG 공시 대응 현황과 함께 지속가능금융 사례를 소개하며 앞선 발표자와 심층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안나 크루입 유엔글로벌콤팩트 환경 수석 매니저인 안나 크루입의 'UNGC의 공정한 전환 정책 브리프' 영상 발표로 세션을 열었습니다. 안나 크루입은 기업이 공정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2년 8월에 발간한 브리프 자료에 제시된 기업 행동 조치를 요약하여 소개했습니다.



‘기업 내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증진 방안’ 토크 콘서트는 올해로 세번째 라운드를 맞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TGE)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토크콘서트의 좌장을 맡은 이은경 실장은 먼저 UNGC 한국협회가 개정발간한 『젠더 동향 리포트: 기업 내 성평등 증진 및 성소수자 포용』 리포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KB 금융지주 ESG 본부의 문혜숙 상무가 각각 『기업에서의 차별금지과 다양성의 증진』, 『KB 금융지주의 다양성 및 포용성 경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과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세션에서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정의에 기반한 공급망 재생에너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대기업이 탄소중립을 통해 얻는 이익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LG 화학의 김종필 팀장은 LG 화학의 탈탄소화 전략과 계획을 공유하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공동 협력 및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김범수 RE100 팀장,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규종 기업 RE100 지원센터장, SK 하이닉스 이승준 ESG 전략팀장이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ESG 경영에 있어 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논의하며,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분과 세션으로 진행된 Gender Equality Korea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이하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는 고위직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회원사의 경력 10년차 이상 여성 실무진을 모아, 주제별 강연 및 소그룹 토의와 교류활동으로 이루어진 두 트랙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에서 진행 중인 젠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양숙 유한킴벌리 이사와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이 '여성 리더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함께 진행하는 대담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메리 워릭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차장이 '탄소 중립을 향한 공정한 전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전했습니다. 메리 워릭 사무차장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전세계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정책과 자금을 마련해 2050년 넷제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패널토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경영’을 주제로, 기술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인권경영의 주요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먼저 캐서린 블록 바이버그 덴마크 인권연구소 기업과 인권 수석연구원이 영상 발표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권 실사 및 인권영향평가 과제와 대응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신기술로 인한 국내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경영 실현 방안을 소개했고,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인권경영의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카카오 인권과 기술 윤리팀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럭키 드로우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콜마홀딩스, LG 생활건강, CJ 제일제당, 한샘, LG 전자, 카카오 등 많은 기업이 물품을 후원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참석자들에 행운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본 행사를 관통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제시하며 본 행사의 막을 알렸습니다. 먼저, 글로벌 모두, 모든 임직원, 남녀 및 성소수자 모두, 협력사까지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ESG 에 대한 재해석인 Everything for Sustainable Growth 을 재인용하며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High tech with high touch 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협약인 Global Compact 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행사 참석자 및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 〈각 세션별 결과공유 바로가기〉

- [KLS 2022 - 글로벌 ESG 공시와 지속가능금융](#)
- [KLS 2022 - 특별강연 I. UNGC 의 공정한 전환 정책 브리프](#)
- [KLS 2022 - Talk Concert: 기업 내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증진 방안](#)
- [KLS 2022 -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 [KLS 2022 - \[Gender Equality Korea\]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런칭 세션](#)
- [KLS 2022 - 특별강연 II. 탄소중립을 향한 공정한 전환](#)
- [KLS 2022 - 디지털 시대의 인권경영](#)

자세히 보기



## 2. [Monthly Insights 12 월호] Korea Leaders Summit 2022 핵심 내용 요약

### 국내 최대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 하이라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Monthly Insights 2022 년 12 월호에서는 지난 11 월 29 일 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Korea Leaders Summit 2022)'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번 Monthly 의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서밋의 핵심 주제인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과 이와 관련, UNGC 의 핵심 정책을 브리핑했던 안나 크루입(Anna Kruij) 유엔글로벌콤팩트 환경 수석 매니저의 발표 전문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최종 승인 소식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로는 Harvard Business Review 의 'LGBTIQ+ 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 지원(Supporting LGBTQ+ Workers' Mental Health)'을 주제로 정리하였으며, 비자(Visa)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를 담았습니다.

### <주요 콘텐츠>

#### 1.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Korea Leaders Summit 2022) 하이라이트 및 결과 공유



이번 Monthly Insights 를 통해 11 월 29 일 개최된 코리아 리더스 서밋(Korea Leaders Summit)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번 컨퍼런스를 관통하는 주제,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소개한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과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차장보의 개회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기조연설 및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폐회사를 담았습니다.

## 개회사, 축사, 특별연설 및 폐회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급속한 이자를 상승,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계 위협 등 여러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난관이 많아졌다. 특히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와 개발, 그리고 인권을 촉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기후 정의 및 평화 실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세 가지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및 글로벌, 모든 임직원, 남녀 및 성소수자, 협력사까지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어서 ESG에 대한 재해석인 Everything for Sustainable Growth를 재인용하며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High tech with high touch를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협약인 Global Compact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 2023년 선정된 LEAD 기업 위촉 세레머니(좌)/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우)

이어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회원사를 UNGC 한국협회의 LEAD 그룹으로 위촉하는 세레머니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업이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음악회를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였습니다.

## 특별세션: 글로벌 ESG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



특별세션에서는 '글로벌 ESG 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대용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세버린 니어부트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수석정책고문이 ESG 정보를 활용한 연기금의 책임 투자를 주제로 영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백태영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은 ISSB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전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과 안옥상 KDB산업은행 ESG기획부장은 각 사의 ESG 공시 대응 현황과 함께 지속가능금융 사례를 소개하며 앞선 발표자와 심층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Monthly에서는 특히 컨퍼런스에서 열린 다양한 세션, 『글로벌 ESG 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 토크콘서트 『기업 내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증진 방안』,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런칭 세션』, 특별강연 『탄소중립을 향한 공정한 전환』, 『디지털 시대의 인권경영』 등,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아우르며 논의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 2. 전문가 인사이트

이어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구성한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코리아 리더스 서밋(Korea Leaders Summit 2022)에서 발표한 안나 크루입(Anna Kruij) UNGC 환경 수석 매니저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전환을 위해 UNGC가 전개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UNGC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정책 브리핑



안나 크루입(Anna Kruij)

| UNGC 환경 수석 매니저



###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자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면서 역외보조금 규정(FSR) 외에도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6건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활용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사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소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지난 11월 2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CSRD의 핵심 개정안은 의무 정보 공시 대상과 내용 전면 확대, 정보의 신뢰성 개선 및 감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담 차별화 등이었습니다. EU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 유럽 상장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후 위기, 인권, 부패, 다양성 등 기업 활동에 미칠 이슈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EU 위원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최종 승인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자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면서 한국 산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EU에서 현재 역외보조금 규정(FSR) 외에도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6건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등을 내세우며 걸로르는 탄소중립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산 전자배터리의 미국 수출길을 막고 있는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꽃** 이은 EU발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에 韓기업들 '노심초사'

### 4. UNGC 본부소식

본부소식으로는 『기후적응을 위한 공정한 전환:비즈니스 브리프』 발간 소식과, COP:27 해양 분야 글로벌 리더를 위한 3가지 행동 방안 제시, 그리고 UNGC의 발리 B20 서밋 참가 소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부소식



『기후적응을 위한 공정한 전환: 비즈니스 브리프』 발간

자세히 보기



COP27: 해양 분야 글로벌 리더를 위한 3가지 핵심 영역

자세히 보기

## 5. GEK(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



[Harvard Business Review]  
LGBTQ+ 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 지원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비자(Visa)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Gender Equality Korea(GEK)의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향 콘텐츠로는 의 ‘LGBTIQ+ 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 지원(Supporting LGBTQ+ Workers’ Mental Health)’을 주제로 정리하였으며, 비자(Visa)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를 담았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희원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 3. TGE 프로그램 ROUND III(2022-23) 결과 공유

## TGE 프로그램 ROUND III (2022-23) 결과공유

기간: 2022년 8월 - 2022년 12월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 온라인

TGE(Target Gender Equality, 타깃젠더이퀄리티) 프로그램은 기업 내 다양성과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020년, 프로그램의 글로벌 런칭 첫 해부터 참여하여 올해 3차년도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약 30여개의 기업 및 기관이 본 프로그램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기반으로 정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과 그 달성을 지원합니다.

\*ROUND III 최종 수료 기업/기관: CJ제일제당, DGB금융지주, HK이노엔, KB증권, (주)두산, 에코나인, 클리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진흥공사(KIND)

#### ■ 킥오프 및 조찬 간담회(9/7)

협회는 지난 해에 이어 ROUND III 의 런칭을 기념하며, 더 플라자 오크홀에서 이를 기념하는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TGE 프로그램 참여사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유엔글로벌콤팩트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사무차장 명의의 레터를 전달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한 챔피언(임원) 및 실무진들을 환영했으며,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과 TGE ROUND III』를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UNGC 10대 원칙과 SDGs의 이행을 위해 성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전세계 170여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지침을 제공하는 WEPs Tool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문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와 박정임 메리츠자산운용 더우먼펀드 책임운영역이 각각 『기업 내 성별 다양성 확대와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과 『젠더 렌즈 투자』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교수는 성별 다양성의 문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번성 차원의 문제인만큼, 세대, 학벌, 지연, 혈연,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이슈의 핵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고, 박 책임운영역은 금융권에서 여성임원으로 성장하기까지 개인적 경험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젠더 렌즈 투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사회 내 다양성 등의 성평등 지표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재 유치와 유지 측면에서도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1&2차 워크숍: 여성 리더십 글로벌 동향 브리핑 및 『모듈 1: 목표 설정 및 앰비션 정의하기』



TGE ROUND III 참여사 실무진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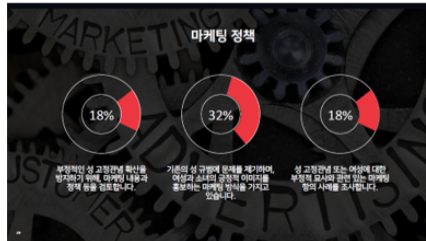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진흥공사(KIND) 한진희 차장

9월 29일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 다시 모인 참여사 실무진들은 각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재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진행 중인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약 6개월 간 진행될 TGE 프로그램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준호 KB증권 차장



WEPs 결과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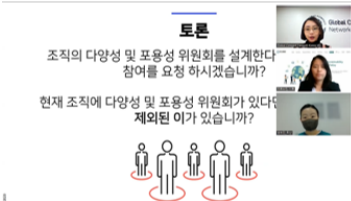
박희원 UNGC 한국협회 연구원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틀을 통한 각 기업 및 기관 별 자가진단 과제를 마친 참여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희원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이 글로벌과 한국 참여사 비교분석 결과 및 평균치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참여사 모두 법·제도 준수 차원에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비교적 앞서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행과 측정 및 실천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나타나, 앞으로 진행할 워크숍 모듈에서 목표 설정 시, 이를 보완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이 『모듈 1: 목표 설정 및 앰비션 정의하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다양성과 포용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포용성은 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 실적 향상 △직원 생산성 향상 △팀 실적 개선 및 혁신 △시장 평판 향상 등을 사내 다양성 향상의 이점으로, △팀 문제 해결에 도움 △업무 참여도 향상 △직원 근속기간 향상 △직원 혁신은 포용성 향상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목표(타겟)의 정의를 설명하고,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eabl(East African Breweries Limited), Capgemini, Natura&Co 및 KB금융지주와 유한킴벌리 등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별 균형이란 무엇인지, 몇 %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더불어, 진전 상황 측정과 투명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책임부서 및 책임자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참여한 참여사 실무진들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자가진단 과제 수행 후 기업·기관별 개선점 및 소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2차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 3차 워크숍: 『모듈 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세우기』(12/1)




**토론**  
조직의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를 설계한다  
참여를 요청 하시겠습니까?  
현재 조직에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가 있다  
제외된 이가 있습니까?

온라인 토론 화면



모듈 2 '액션 플래닝 가이드' 예시



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KEY LEARNINGS  
Applying a Gender Lens to Sustainable Procurement

지속 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주요 학습 포인트

- 공급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에서 젠더 다양성 (gender-diversity)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여성 소수 기업이 직면한 장애를 확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과 공급사 네트워킹 현황을 파악합니다.
- 동료 및 공급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육과 KPI 평가 기준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조달 전략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기업이 전체에 있는 명확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률 관련 여부를 측정하고,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속가능한 조달에 젠더 렌즈 적용 가이드 브리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진행된 3차 온라인 워크숍은 지난 모듈 1 워크숍 당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먼저 사전 과제인 모듈 1 액션 플래닝 가이드를 수행한 참여사 실무진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실무진은 지난 워크숍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와 협력 부서, 논의할 담당자 등을 소개했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숍에서는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이니셔티브의 핵심 성공 요소로 △조직의 목표와 및 가치와 연계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고위급 리더가 가시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책임 및 투명성 △임직원의 참여와 문화의 변화 △진전 상황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Bank of America, Credit Suisse 등에서 사내 인식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런칭한 임직원 리소스 그룹(ERG) 및 사내 대화 프로그램 등의 예시를 들며, DEI에 대한 전체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각 섹터 별 상황에 맞는 목표 달성 전략 달성 계획 수립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 ■ 4차 워크숍 및 수료식 : 『모듈 3: 진전 상황 측정 및 커뮤니케이션』(12/14)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사전에 부여 받은 모듈 2 액션 플래닝 가이드 과제 발표에 따라, 단기(3-6개월 이내), 중기(6-12개월 이내), 장기(12개월 이상) 액션, 목표 달성 기한 및 책임 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해보고, 이를 발표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어 이를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다루는 모듈 3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사 실무진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음을 △대표성 △ 고용 △ 승진 △ 자발적 이직 △ 비자발적 이직 등의 정보 매트릭스와 그 의미를 Nationwide, Schneider Electric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또한 △멘토링 △직원 리소스 그룹(ERG) △유연 근무제 등 사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DEI 이니셔티브의 기여요소로 △비즈니스적 논리 △리더십 △의사소통 △책임 및 투명성 △직원 참여 △진전 상황 측정이 가능함을 토론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atalyst 포용성 리더십 모델을 통해서 리더의 책임 및 리더십 지지의 중요성을, DHL Group 등의 예시를 통해서 진전 상황 커뮤니케이션과 외부 공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모듈 3 액션 플래닝 가이드를 통해 대표성, 채용률, 승진율, 이직률 등 현재 측정 중인 지표 및 프로그램과 정책을 점검하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정리 및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워크숍 종료 후, TGE 프로그램 ROUND III 최종 수료사인 CJ제일제당, DGB금융지주, HK이노엔, KB증권, (주)두산, 에코나인, 클리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진흥공사(KIND) 실무진을 대상으로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사 실무진은 ROUND III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백래시(backlash)와 역차별 논란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과 사례 및 고충을 나누고, 네트워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TGE 프로그램을 비롯한 협회의 여성 역량 강화 및 기업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향후 UNGC 한국협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희원 연구원 (T. 070-4327-9767, gckorea@globalcompact.kr)

## 본부소식

### 1.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Financing a Just Transition:A Business Brief)』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금융기관, 최고재무책임자 및 기업 재무 담당자, 투자자, 최고투자책임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및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주요 금융 주체들에게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기를 촉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브리프,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Financing a Just Transition)』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전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다루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의 녹색화를 지향합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여러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기후 행동을 포용적 경제 및 지속가능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금융 의사결정자들에 제공합니다.

본 비즈니스 브리프는 비즈니스 운영의 네 가지 핵심요소인 전략,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다룹니다. 특히 정책 입안자와의 소통을 통해 금융 관련 정책과 규제 및 전환 계획 등과 관련된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기관들의 공정한 전환 추진 방법을 모색합니다.

또한 금융이 정부, 노동, 기업 및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본 지출을 할당하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하며 강력한 정보 인프라에 기여함으로써 어떻게 실제 경제활동에서 교차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공정한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세히 보기



## 2.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를 위한 CFO 연합', 새로운 자문위원회 임명



### CFO COALITION FOR THE SDGs

유엔글로벌콤팩트의 SDGs 를 위한 CFO 연합(이하 "연합")은 연합의 전략, 프로그램 및 임팩트의 주요 사항을 지도할 자문위원회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산업 및 지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CFO 와 더 폭넓은 지속가능금융 커뮤니티 간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섹터 및 이슈를 조정할 예정이며, 연합의 새 멤버를 모집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2 년 3 월에 구성된 SDGs 를 위한 CFO 연합은, 기업금융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CFO 연합의 토대를 마련한 CFO 태스크포스(2019 년 9 월 출범)의 활동을 확장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연합은 CFO 및 기타 기업 임원이 동료, 투자자, 금융 기관 및 UN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기업 금융에 통합하고 주류 SDG 투자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원칙, 프레임워크 및 권고 사항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UN 은 세계가 2030 년까지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3 조~5 조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1. 2030 년까지 SDGs 에 수조 달러의 기업 투자를 지시하고 SDG 금융을 위한 10 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연합 내 CFO 들의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활용한다.
2. CFO 리더십 그룹을 72 명에서 100 명으로 2023 년까지 확대한다.
3. CFO 원칙의 서명자 1,000 명으로 구성된 CFO 커뮤니티를 2023 년까지 육성한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를 위한 CFO 연합 책임자 마리 모리스(Marie Morice)와 제롬 라빈스델비(Jerome Lavigne-Delville)**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이며 기후적으로 안전한 미래로 전환하는 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가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와 정부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책임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이니셔티브인 SDGs 를 위한 CFO 연합(CFO Coalition for the SDGs)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설계자로서 CFO 의 역할을 재구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계속 확장해감에 따라, 새로운 자문 위원회가 지침을 만들고 기여를 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자문위원회는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연합의 전략, 프로그램 및 임팩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과 리더십을 제공하고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을 돕는 공동 의장 2 명, 각 거시 부문을 대표하는 7 개 부문의 대표,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연합 공동대표의 사무국 2 명으로 구성됩니다.



### **크리스찬 스트레이크(Christian Stracke) SDGs 를 위한 CFO 연합 공동 의장 겸 PIMCO 글로벌 크레딧 리서치 책임자**

"CFO 연합의 사명은 분명하다. 즉, SDG 투자 및 재무를 약속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글로벌 움직임을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문위원회는 본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중요한 관리감독 및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섹터의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 **알베르토 드 파올리(Alberto De Paoli) SDGs 를 위한 CFO 연합의 공동 의장이자 Enel 의 CFO**

"새로운 자문위원회에 속한 세계적 기업의 CFO 들의 지원이 더욱 증가하면서, 세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CFO 연합이 진화하였다."

SDGs 를 위한 CFO 연합의 새로운 자문위원회는 CFO 들이 지속가능성 목표의 임팩트를 정량화 하기 위해 점점 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CFO 연합의 멤버들은 이미 SDG 에 1,100 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SDG 금융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공동 의장과 부문 대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2 년 임기로 임명합니다.

유럽에서는 소비재 부문을 대표하는 Danone 의 CFO 인 Juergen Esser 와 함께 Marie Morice 공동 대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Cargill 의 CFO 인 Carole Ferrand 는 컨설팅 부문을 대표하고, Enel 의 CFO 인 Alberto Di Paoli 는 공동의장을 맡으며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을 대표합니다. 아메리카에서는 Jerome Lavigne-Deville 이 공동 대표를 맡고 AB InBev 의 CFO 인 Fernando Tennenbaum 이 소비재 부문을 대표하며, Cemex 의 CFO 인 Maher Al-Haffar 가 건설, 자재 및 부동산 부문을 대표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Tata Steel 의 CFO 인 Koushik Chatterjee 가 산업재 부문을 대표합니다.

2023 년에 SDGs 를 위한 CFO 연합은 SDG 관련 데이터 및 기업 정보의 고유한 종합체인 자문위원회에서 대표하는 동일 부문들을 기반으로 6 개 거시 부문 프로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프로필은 부문별 SDG 연계

투자 및 SDG 연계 금융에 대한 CFO의 모범 사례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는 2022년도 CFO 원칙 연례 이행보고서에서 확보한 데이터에 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특정 산업 내 지속가능성 전환에 적합한 투자 유형 및 목표에 대한 전문가 간의 새로운 합의에 기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및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와 같은 표준 설정기관, 셀사이드(sell-side) 리서치 등 리서치 기관, 관리 컨설턴트 및 EU 탄소노미와 같은 새로 부상하는 규제가 포함됩니다.

### **SDGs를 위한 CFO 연합**

SDGs를 위한 CFO 연합은 글로벌 CFO 및 기타 기업 임원들이 동료, 투자자, 금융 기관 및 UN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업 재무에 통합하고 주류 SDG 투자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원칙, 프레임워크, 권고사항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focoalition.org](https://cfocoalition.org)를 방문하십시오.

유엔글로벌컴팩트 SDGs를 위한 CFO 연합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 3. 기업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 코스 안내



[제 27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기후 행동에 대한 촉구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경고하는 여러 기후 보고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인간의 복지와 지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기후 행동을 점검할 때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구의 화석연료 중독이 끊어져야 하며 “인류는 오늘의 안전과 내일의 생존을 위해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있다”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 거듭된 경고에 뜻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결정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요구되는 지금, 민간 부문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린워싱이 난무하는 기업 환경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책임 있는 넷제로 공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기업이 넷제로 달성을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1,900 여개 이상의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검증했고, 2,000 여개 이상의 기업은 가까운 미래에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모든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무료 e-러닝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아직 기후 리더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1: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회사로부터 과학기반 감축목표가 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30 분짜리 e-러닝 모듈](#)과 [새로운 넷제로 표준\(Net-Zero Standard\)](#)에 대한 관련 모듈(20 분)을 수강하실 경우,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의 주요 프로세스와 이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온실가스 산정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싶으신가요?

[Scope 1, 2, 3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셀프 러닝 플랜(3 시간)을 학습할 것을 추천합니다(해당 서비스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에게만 제공됩니다. 아직 회원사가 아닐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참여 방법을 알아보세요](#)).

## #3: 파리 협정의 1.5°C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스마트(climate-smart) 해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양 원칙 이행 방법](#)에 대한 기본 코스(30 분)를 학습해보세요.

각각의 코스를 완료하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수료증이 제공되며, 기후 행동을 위한 노력을 여러 네트워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 1. 기업 소개



콜마그룹의 비즈니스는 인간의 의식주와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아우르는 스타비즈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위해 고객과 기술 중심 가치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처음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개발생산)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수준을 바탕으로 트렌드 파악, 상품 기획, 개발, 출하,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기업의 든든한 서포터로서 K 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민관 최초 합작회사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제 1 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천연물 기반 신소재를 연구개발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HK inno.N 은 국내 대표 제약사로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 제약을 연결해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창출합니다. 간, 암, 면역질환 및 감염·백신 분야 신약 개발에 연구 역량을 투자하고 있으며, 2019 년 출시한 대한민국 30 호 신약 '케이캡정'은 블록버스터 신약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 (1) ESG 이행 전략

한국콜마홀딩스는 2023년 ESG 전략 체계 수립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사 차원의 ESG 경영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① ESG 경영현황 · 수준 진단, ② 영역별 맞춤형 과제 도출, ③ 과제별 이행 추진 로드맵 수립, ④ 전략적 대응을 위한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⑤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기능별 역량 강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ESG 경영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사인 HK inno.N은 2022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2) ESG 이행 현황



(△ UNGC CoP 그룹 실무자 2 차 협의체 모습)

콜마그룹은 2021년 UNGC에 가입한 이후, UNGC CoP 그룹 실무자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뿐만 아니라 주요 관계사(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HK inno.N)의 인권 · 노동 · 환경 · 반부패 분야 이슈와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UNGC 한국협회 2023 LEAD 기업 위촉 행사 기념 사진)

또한, UNGC Early Adopter Programme 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당사의 ESG 경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ESG 경영을 기업문화로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콜마홀딩스는 2023 UNGC 한국협회 LEAD 그룹에 선정된 바 있으며, ESG 경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사례

#### (1) 환경(E)

##### 가. 주요 관계사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구분        | 내용  |
|-----------|---|
| 한국콜마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RE100(세종공장, 종합기술원) 등      |
| 콜마비앤에이치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인증 등 |
| HK inno.N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등                  |

##### 나. 친환경 용기 · 원료 ·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화장품 산업 생태계 구축



(△ 뚜껑 제외 본체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줄인 친환경 화장품 용기 '종이튜브')

한국콜마는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뚜껑을 제외한 본체의 플라스틱 사용량의 80%를 줄인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의 본상을 수상하였고, 세계 최고 권위의 패키징 어워드인 2021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본상과 아시아 스타어워드 최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함유되는 계면활성제와 점증제의 친환경 원료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와 점증제는 화학 합성 물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한국콜마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에 특화된 (재)한동해산업연구원과 함께 국내 야생화에서 유래한 생물 계면활성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과제를 통해 기존 화학물질 기반의 점증제 대체를 위한 친환경 바이오 점증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 (2) 사회(S)

### 가. 콜마 커넥트 워크



(△ ‘콜마 커넥트 워크’ 기간 중 배식 봉사활동 중인 한국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과 안병준 대표이사)

콜마그룹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를 ‘콜마 커넥트 워크’로 지정하고, 전사 차원의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세종·인천·부천 등 전국 사업장에서 도시락 배달·배식 봉사·환경 정화 활동 등을 릴레이 식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은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건강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나. 가족친화기업 인증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포함하여 주요 관계사(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HK inno.N)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다자녀 출산 장려금’ 등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모성보호공간 운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부 검진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가족을 위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효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G)

#### 가.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구축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 획득 후 기념 사진)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포함하여 주요 관계사(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HK inno.N)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2021년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 등 CP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 전사적 ESG 경영 활동 참여



(△ 콜마그룹 사내방송 ESG 시리즈 2탄 ‘반부패’)

콜마그룹은 UNGC 4대 분야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를 기반으로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천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콜마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방송을 통해 ESG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Kolmar ESG 주간을 운영하여 임직원들이 친환경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이 기간 동안 1회용품 줄이기, 계단 이용, 잔반 줄이기 등의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콜마그룹 준법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글로벌상황과 트렌드 및 윤리강령의 내용을 다루는 반부패 분야 영상을

제작·공유하였습니다. 향후 방영 예정인 인권 분야의 영상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ESG 인식을 고취시키고 업무 현장에서의 ESG 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SDGs  | 콜마그룹의 성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준비청년 지원(화장품 분야 패키지 디자인 교육 등 제공)</li> <li>- 보호소년들의 건전 육성 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장려금, 임신위험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유급휴가 지원 등 모성보호 제도&amp;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위한 제도 운영</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생명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WBF-석오 생명과학자상 제정)</li> <li>-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 직업훈련 지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Z 세대와의 리버스 멘토링 실시를 통한 상호 간의 트렌드 캐칭 활동 진행</li> <li>- 개인별 연봉 조정시 성과 등급별 인상률 차등</li> <li>- 고성과자 대상 추가 인상분인 능력급 제도 운영</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소통협의체 운영(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내 현안에 대한 지원)</li> <li>-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후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소재(PCR-PE) 적용 화장품 포장재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i> <li>- 친환경 화장품 용기(종이튜브) 및 미세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제품 개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원료 부산물 활용 친환경 비료 개발 업무협약 체결</li> <li>- 국가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획득</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HK inno.N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 획득</li> </ul>                              |

[자세히 보기](#)

## SDGs 소식

### [SDGs 솔루션] 외스테르브로 지구(Østerbro district) 프로젝트

코펜하겐시 지방정부, 주민, 고문 및 공급업체는 코펜하겐시\*\*의 재개발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에 협력했습니다.

(\*\*코펜하겐시: 코펜하겐시는 덴마크의 가장 큰 기초 자치제이며, 덴마크 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스테르브로(Østerbro) 지구에 기반을 둔 본 프로젝트는 코펜하겐시 기후 전략(Copenhagen Municipality Climate Strategy)의 일환으로, 노후 건물이 기후 변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코펜하겐시는 기후 적응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왔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빗물 관리에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빗물 관리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안뜰 중앙에 개울을 설치해, 고인 빗물과 건물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빗물이 세탁과 화장실 물을 내리는 목적으로 가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설계 기능은 건물의 물 소비량을 27%까지 감소시킵니다. 또한 건물의 빗물을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홍수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보수 작업은 열섬 현상(heat-island effect) 완화, 건물의 탄소 배출량 16,800 톤 감축, 주민들에게 휴양가치(recreational value) 제공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SDG 3 건강과 복지

안뜰을 통해 단열 및 통풍 개선 효과 뿐 아니라, 일조량 확보를 통해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외스테르브로 지구(Østerbro district) 프로젝트는 지역의 휴양적 가치를 높이고, 아파트 내 및 아파트 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 SDG 13 기후행동

본 프로젝트는 건물 에너지 소비 최소 25% 감소 및 건물 내 모든 빗물 처리를 통해, 코펜하겐시의 기후 목표에 부합합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1. UNGC 한국협회,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 개최...지속가능성 공시에 주목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11 월 29 일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인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 개최함.
- 백태영 IFRS 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 '글로벌 ESG 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 특별 세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바뀌고, 재무제표 공시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ISSB 공시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에 더해 "ISSB 공시 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가별 특징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위에 세부 기준을 더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기준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임팩트온

## 2. 씨앤씨인터내셔널, UNGC 가입...ESG 경영 전걸음



- 씨앤씨인터내셔널, ESG 경영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완료했음을 밝힘.
-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이번 UNGC 가입에 따라 매년 10대 원칙과 지속가능개발목표(SGDs) 준수 활동을 평가하는 '이행보고서(COP)'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공유할 방침임.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씨앤씨인터내셔널의 가입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기업 운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성기훈 씨앤씨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이번 UNGC 가입은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의 실천을 위해 더욱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전함.

매일경제

### 3. 미래에셋, 여성 임원 14 명 대거 승진



김미정 전무

김은령 전무

남미옥 전무

노정숙 전무

정의선 전무

- 미래에셋금융그룹, 지난 11 월 16 일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고 여성 임원을 대거 발탁하는 내용의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함.
-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성과 중심 발탁 인사’ ‘여성 인재 발탁’ ‘세대교체’ 등 4 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인사·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임.
- 이번 인사에서 권순학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승건 미래에셋컨설팅 대표이사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4 명의 여성 임원이 승진함.

한국경제



#### 4. LG 전자 "전 세계 임직원에게 ESG 교육 의무화"



- LG 전자가 글로벌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해당 교육은 ESG 개념과 중요성, LG 전자의 중장기 ESG 비전, ESG 관련 전략 과제 등을 포함함.
- 전사적으로 'ESG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활동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생산, 사용, 회수, 재활용 등 생활가전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도 강화할 계획임.

한국경제

## 5.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TCFD 지지선언...“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kakaopay

- 카카오페이가 지난 11 월 24 일,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지를 선언함.
- 카카오페이는 TCFD 지지선언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금융 리스크를 경영에 반영해 핀테크 기업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임.
-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는 등 핀테크 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있음.

이투데이

# 회원사 안내

## 1. 신규·재가입 회원

11 월 10 일부터 12 월 2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카카오뱅크
- CJ CGV
- 넷마블

##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0 일부터 12 월 21 일까지 2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효성화학
- 광주광역시공사
- 코오롱인더스트리
- 경기신용보증재단
- 인피니티컨설팅
- 국가철도공단
- 한화솔루션
- 현대글로벌비스
- 더씨에스알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공사
- SK 이노베이션
- 한국해양진흥공사
- 롯데렌탈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미술등록협회
- 고려제강
- 케이씨아이
- 한국동서발전
- 인천항만공사
- 대전도시공사
- 해양환경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3년도 개정 COP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 회원

2023년도 개정 COP 정책 도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초,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는 오는 2023년부터 영리 회원사들이 모두 응답해야 하는 COP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한국협회에서는 총 13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가 제출한 COP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고무벨트](#)
- [DRB 동일](#)
- [DGB 금융지주](#)
- [만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애규온캐피탈](#)
- [HK 이노엔](#)
- [유한킴벌리](#)
- [콜마비엔에이치](#)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
- [효성첨단소재](#)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비영리 회원사는 내년도 동일하게 기존 COE 정책대로 COE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  |   |
|--|---|
|  | <p>This is our <b>Communication on Progress</b> in implementing the Ten Principles of the <b>United Nations Global Compact</b>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p> <p>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p> |
|--|---|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